

# 惟一齋 金彦璣의 삶과 文學世界

朴 英 鎬(慶北大 漢文學科 教授)

## • 目 次 •

- |              |              |
|--------------|--------------|
| 1. 序論        | 2). 蕭散山水의 情趣 |
| 2. 純粹處士로서의 삶 | 3). 離別의 情恨   |
| 3. 惟一齋의 文學世界 | 4. 結論        |
| 1). 安貧樂道의 追求 |              |

## 1. 序論

이 글은 16세기 안동에서 순수처사로 살았던 惟一齋 金彦璣(1520~1588)의 처사로서의 삶과 문학을 조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訥隱 李光庭(1674~1756)은, “선생은 實質을 숭상하고 걸치레를 물리쳤다. 자취는 名利를 가까이 하지 않았고, 몸을 삼가며 행실이 정결하였지만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라지 않았다. 일상의 규범에 따라 종사하여 일찍이 세상을 놀라게 하거나 사람들을 경악하게 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 은거하여 뜻을 구하고 행동이 높고 德이 뛰어나, 세상에는 선생의 조예를 아는 사람이 드물었다.”<sup>1)</sup>라고 하여 유일재를 ‘眞隱’으로 평가하였다. 이는 유일재가 세속의 명리를 버리고 유가적 윤리도덕을 실천하고 덕성의 함양에 힘쓰며 純粹處士<sup>2)</sup>로서의 삶을 살았음을 의미한다.

1) 『유일재 실기』, 『행장』; 先生敦實紉華 跡不近名 操身潔行 不蘄見知 從事乎日用常行之則 而未嘗爲驚世震人之行 隱居求志 行尊德邵 而世罕有知先生所造者.

2) 순수처사라는 개념에 대해 이종호 교수는, “일반적으로 純粹處士는 처사의 순결성을 잃지 않은 부류이다. ‘처사의 순결성’은 형식논리로 판단하면, ‘사회진출’을 거부하고 ‘田園隱居’를 시종 실천했을 때 획득된다. 그러나 본질내에서 보면, ‘순도 높은 순결성’을 처음부터 의심받을 만한 진출의 몸짓을 보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어진 진출의 기회를 강고히 거부하고, 유가적 이념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 ‘淸隱’에게서 찾아진다. 그와는 반대로 진출의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지만 끝내 뜻을

유일재는 비록 일찍이 寧海府 教授를 지낸 적이 있었지만 이를 관계진출로 보기는 어렵고, 48세의 늦은 나이에 司馬試에 합격한 것 또한 오직 부모의 간곡한 권유에 응했던 것이지 관계진출이 목적이 아니었다.<sup>3)</sup>

유일재는 관계진출에 뜻을 두지 않은 반면에, 향촌사회에서 '士'의 본분을 망각하지 않고 평생동안 실천하였으며 특히 학문 연마와 향촌사회 교화에 심혈을 기울였다. 이것은 서당건립을 통한 후진 양성과 서원창설을 통한 先賢奉祀와 講學으로 나타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유일재의 순수처사로서의 삶과 단편적으로 남아 있는 자료를 통해 그의 문학세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 2. 純粹處士로서의 삶

유일재의 삶을 전체적으로 조명할 수 있는 자료는 그리 많지 않다. 「행장」과 「묘갈」 및 「유사」를 통해 그의 삶의 모습과 후진양성 및 서원창설을 통한 향촌사회에 대한 사적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

유일재는 光山 金氏로 豐山 九潭에서 태어났다. 先代는 원래 서울에서 벼슬하던 가문으로 退村 閔은 문장으로 세상에 드러났다. 조부인 用石(자 鍊叔, 호 潭庵)은 估畢齋 金宗直(1431~1492)의 문하에서 수업하였으며, 일찍이 南孝溫(1454~1492)·姜應貞(자 公直, 호 中和齋) 등 명현들과 함께 태학에서 朱文公의 고사에 따라 鄉約契를 만들어 매월 초하루에 서로 모여 『小學』을 강론하였다. 당시 태학에 뽑힌 인물들은 모두 당대의 명사들로서 김용석과 申從濩(1456~1497)이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인물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燕山君의 亂政을 본 뒤로는 정치에 환멸을 느낀 나머지 안동의 구담으로 내려와 우거하게 된다. 그리고 스스로 세상에 자취가 드러나는 것을 꺼려, 臨終에 책상 위에 있던 글을 모

---

이루지 못하고 '庸儒'로서 생을 마감한 인간형에게도 순수처사의 이름은 따라 붙는다."고 하였다.(이종호, 『안동의 선비문화』, 「서문」, 아세아 문화사, 1997)

3) 『惟一齋實紀』, 「遺事後敘」, 先生恬於勢利 不求聞達於世 以親意強就公車 既登司馬 不復應舉 隱居求志.

두 불태워 버렸고, 자손들에게 벼슬에 나아가지 말 것을 경계하였다고 한다.<sup>4)</sup>

유일재의 성장기의 행적을 알 수는 없으나 柏潭 具鳳齡(1526~1586)과의 일화가 하나 전한다. 일찍이 백담과 靑涼山에 들어가 10년 글읽기를 기약하였지만, 연고가 있어서 백담보다 1년 못미처 산을 내려오는데 언덕 위의 초목들이 모두 읽었던 글자로 보였다고 한다.<sup>5)</sup>

중년에는 풍산의 구담에서 西後의 伊溪로 이사하였다가 만년에는 와룡의 佳野에 터를 마련하였다. 여기에서 퇴계가 강학하던 陶山과는 불과 30리의 거리에 있었으며, 烏川의 金富弼(?~1578) 종형제들과 산등성이를 사이에 두고 가깝게 지내게 되었으며, 具鳳齡·晦谷 權春蘭(1539~1617)·松巖 權好文(1532~1587)·芝山 金八元(1524~?) 등과도 가까이 지내게 되었다. 유일재는 이들과 同志契를 맺고 매월 초하루면 산사에 모여 학문을 강론하였다. 동지계는 일종의 학계 또는 강계(講契)라고 할 수 있으며 당시 퇴계문하의 인물들, 특히 학문연구와 후생교육을 함께 하였던 안동 선비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여기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sup>6)</sup> 이러한 사정을 미루어 볼 때 유일재와 퇴계문하와의 깊은 교류 관계를 엿볼 수 있다.

유일재와 퇴계와의 관계를 알려주는 문자가 『퇴계집』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퇴계를 모시는 여강서원을 창설할 때 동문들의 추대로 초대 원장이 되어 서원의 설립과 규약을 정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였으니 퇴계문하에서의 위상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上府伯權草濶文海書」에서 “다행히도 지금 때를 같이 하여 이웃에서 모시고 살면서 스승으로 섬기고, 오랫동안 춘풍(德)을 씌고, 향기에 젖어들고 직접 가르침을 받았으니, 눈으로 상상하고 마음으로 생각함에 흥

4) 셋째 아들 芻가 아버지의 명을 어기고 무과에 급제하여 성주목사로 나갔다가 집안에서 추방당하였다고 한다. (『안동 향토지』)

5) 구봉령의 연보를 참고해 보면, 인종 원년으로 1545년에 구봉령이 청량산에 들어가 독서하였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로 미루어 김언기의 나이 26세 때였음을 알 수 있다. 구봉령은 1년이 되지 않아 하산하여 도산으로 퇴계선생을 찾은 것은 것으로 되어 있다. (『백담선생 연보』)

6) 오수경은 佳野同志契의 구성원으로 金彦璣·金富弼·金富倫·金富仁·琴應夾·琴應堦·具鳳齡·權春蘭·權好文·金八元을 들었다. (『안동 선비의 문화의식과 향토문화 창달』, 『안동의 선비문화』, 1997)

중에 감흥이 이는 것이 더욱 깊고 절실합니다.”<sup>7)</sup>라고 하였으니, 수 백언의 문자를 급문하지 않았다면 어찌 이같이 형용할 수 있었겠는가?

위에 언급한 청량산에서의 공부와 동지계를 통한 교류 이외에 퇴계 문하들과의 교류관계는 구봉령과 권호문의 문집에서 찾을 수 있다. 다음은 구봉령이 백담을 찾은 친구들 중 유일재에게 준 시이다.

生同粉社齒同流 같은 고을에서 태어나 나이를 같이한 벗,  
 童艸追隨老未休 어릴 적부터 따라다녀 늙어도 그침이 없구나.  
 江海幾時吟裏興 강해에서 그 언제 마음속의 흥을 일으켰던가?  
 煙霞今日眼中遊 노을진 오늘에는 눈 속에서나 노니네.  
 藜筍白石雙幽屨 흰 돌 위에 명아주 지팡이 짚은 두 신발,  
 桂棹清波一釣舟 맑은 파도에 노질하는 한 고깃배.  
 餘事豈須開算慮 나머지 일이랑 어찌 생각이나 하겠는가?  
 醒吟醉睡任悠悠<sup>8)</sup> 깨면 노래하고 취하면 잠자면서 마음대로 노니리라.

위의 시에서 유일재와 백담은 어려서부터의 교류가 노년에까지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권호문이 쓴 「贈金仲暉」<sup>9)</sup>은 5언 116구 580자의 장편시로 유일재의 삶을 노래하고 있다.

명리에 담박하고 과거를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던 그였지만 부모의 권유로 48세란 나이에 생원시에 합격하였다. 이후로 과거에는 뜻을 두지 않고 오로지 학문연구와 후진양성에 힘을 기울였다.

1561년 42세 되던 해에 가야에 사당을 지어 '惟一齋'라 편액하고 후진을 양성하였는데, 생도가 많아서 모두 수용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한다. 이 때에는 재정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것 같다. 오봉 신지제의 「행장」을 살펴보면, “선생이 서실에 거처하면서 생도들을 가르칠 때 동문 70여 명이 번갈아 가며 땀감을

7) 『유일재 실기』, 「上府伯權草澗文海書」: 幸今同此一時 得侍隣鄉 獲忝函丈 久襲春風 薰沐而親炙之 則目想心思 其所以興感於胸中者 益深且切矣.

8) 『백담집』 권4, 「訪栢潭贈同遊諸公并掌營山人」, 그리고 「金仲暉權景受安汝止及其弟安霏各携壺來訪新栖」(『백담집』 권 2)에서도 그 자취를 찾을 수 있다. 故舊深情此日歡 酒盃相屬雪天寒 分携有夢應尋路 萬疊青山月一彎.

9) 『송암집』 권 1, 「贈金仲暉」

하고 밥을 하는 일을 맡았다. 안동부사 李陽元이 이를 듣고 서재 근처의 柴炭 중에서 관청으로 들여야 할 것을 서재에 맡겨서 땀나무하는 수고를 30년 동안 덜어 주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후진양성에 매진하여 문인록에 기록된 인물이 무려 189명이나 되는데, 이들은 주로 안동 인근의 출신들이다.

유일재는 가르침에 엄격히 과정을 세워 句讀를 먼저하지 않고 정미한 이치를 반복해서 익히도록 하였으며, 詞華를 숭상하지 않고 義利의 분별에 힘쓰도록 하였다. 그리고 孝悌忠信에 근본하여 事親事君의 도를 알게 하였으며, 나갈 바를 바로 잡아서 成己成物의 공을 이루게 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유일재가 문인들을 교화했던 지표이자 자신의 학문적 입장을 표출한 것이기도 하다.

특히 교육을 함에 능력에 따라 인도하여, 과정을 세워 교육했을 것이지만 현재의 자료로는 자세히 알 수 없다. 「행장」에 의하면, 문하의 賁趾 南致利·芝軒 鄭士誠 등은 도산으로 들어가 학문을 마치도록 하여 學問으로 명성이 드러났으며, 玉山 權暉·판서 朴毅長·申之悌·蘆川 權泰一 등은 출사하여 당시 名官이 되었으며, 北厓 金圻·守靜 琴撥 등은 操行으로 드러났으며, 方潭 權杠은 후진양성에 힘써 일대 名人이 되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마침내 “북주(안동)의 학문이 이와 같이 흥성하게 된 것은 유일재 선생의 후생창도에 힘입은 바가 크며”, “오늘날 우리 지방의 선비들이 학문하는 바른 길을 잃지 않고, 자식이 되어 어버이에게 효도하고, 신하가 되어 임금에게 충성하고, 집안을 바르게 하여 남을 다스리고, 어진 이를 높이고 인재를 육성하면서 부귀영달에 뜻을 두지 않는 것이 누구의 공인가?”<sup>10)</sup>라는 칭송을 듣게 되었다.

그리고 유일재가 서당을 중심으로 추구했던 강학활동은 그의 장남인 葛峯 金得研에 의해 成墳庵에서 계속 이어졌다.

안동의 사람들이 퇴계의 향사를 논의하여 蘆江書院을 창건하려고 하였을 때, 사람에서는 유일재를 洞主 [院長] 로 추대하였다. 그리하여 유일재의 주도로 안동부 동쪽 30리쯤의 蘆阜山 五老峯 아래에 터를 잡고,<sup>11)</sup> 1573년(선조 6년) 7

10) 『유일재실기』 권2, 「門人錄跋」, 『孤山集』 권5, 「書佳野同門錄後」; 至今吾鄉爲學之士 不失其踐逕 子焉而孝其親 臣焉而忠其君 正家而治人 尊賢而育材 不但以富貴榮達爲心者 伊誰之功哉.

11) 이곳은 본래 白蓮寺라는 절이 있었는데, 이 절을 헐어서 서원으로 만들었다. 당시

월에 공사를 시작하여 이듬해 5월에 일을 마치게 되었다. 그리고 1576년에 퇴계의 위판을 봉안하고 도산서원의 상덕사와 같은 날 향사를 올리게 하였다.<sup>12)</sup> 서원을 유지할 수 있는 토지와 노비를 하사받고 賜額을 청하기 위해, 서원이 완성된 해에 유일재는 퇴계가 풍기군수 시절 백운동서원의 賜額을 청하는 글을 올렸던 고사에 따라 당시 안동부사로 있던 초간 권문해에게 글을 올린다. 위에 언급하였듯이 이 「上府伯權草濶文海書」는 유일재와 퇴계의 관계를 알려주는 유일한 글이다. 이 편지는 『廬江志』와 『龍山世稿』의 『惟一齋逸稿』, 『惟一齋先生實紀』 등에 유일재의 작품으로 실려 있다. 그런데 같은 글이 의성김씨 靑溪 金璉과 그 아들들의 시문을 모아 엮은 문헌인 『聯芳世稿』의 『南嶽先生逸稿』에 「廬江書院呈文」이란 제목으로 실려 있다. 『용산세고』는 유일재와 두 아들(得研, 得礪)의 시문집으로 1755년경에 이루어졌고, 『연방세고』는 1778년경에 이루어진 듯하다. 『남악선생실기』에 '문文'으로 실려지자, 유일재 후손들이 다시 『유일재선생실기』를 간행하여 후손들의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다.<sup>13)</sup>

이 편지는 당시 안동부사로 있던 권문해에게, 조정에 건의하여 서적과 토지·노비의 지급과 함께 사액을 받을 수 있도록 상주하여 달라는 요청서이다. 그리고 附記에 안동 풍산의 豐嶽書院이 건립되어 토지와 노비를 받은 것에 대하여, 여강서원의 경우는 사림의 공의로 세운 서원이지만 풍악서원은 개인적으로 세운 서원임을 지적하고 풍악서원의 토지와 노비를 여강서원으로 돌릴 것을 청하였다. 이것은 서원의 남설에 제동을 건 경우에 해당되며, 당시에 이미 서원 남설의 문제점이 대두된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이 글을 통해 안동지역 퇴계학파의 발전 과정에서 서원을 중심으로 하여 퇴계학파가 형성되던 당시 안동 사람들의 의식을 확인할 수 있다.<sup>14)</sup>

---

이 절의 중들의 반발이 심하였는데, 선생과 학봉선생이 온다는 말을 듣고 모두 겁을 먹고 달아났다고 한다.

12) 『廬江志』, 권 1 참조.

13) 「상부백권초간문해서」가 『남악선생일고』에 수록되자 이것은 두 집안에 큰 문제를 야기시켰던 것 같다. 이에 다시 『유일재선생실기』를 간행하여 후손들의 입장을 밝힌 「여사빈서(與泗濱書)」와 「答川前金氏書」, 「答川前書」를 부기하였다.

14) 이해영, 「유일재선생실기 해제」, 『퇴계학자료총서』 제3집.

### 3. 惟一齋의 文學世界

현존하는 유일재 문집을 검토해 보면,<sup>15)</sup> 유일재의 작품으로는 詩 8題 9수, 賦 1편, 書 3편, 識 1편에 불과하다. 문집이 남아있지 않으므로 『일고』, 『실기』 등에 실린 내용을 살펴보면, 일실된 유고를 찾으려는 후손들의 각고한 노력이 보인다. 『유일재실기증보』에는 「醉別李大仲介立」·「贈別大仲」의 두 시와 「與李進士大仲」 편지가 추가되어 있는데, 이것은 성오당 이개립의 종택에서 수집한 것이다. 이상에 열거한 작품을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形式	五言律詩	五言古詩	七言絕句	七言律詩	賦	書	識
작품수	1수	1수	3수	3제 4수	1편	3편	1편

15) 『용산세고』의 『유일재선생일고』

서문: 李光庭 찬

卷一: 詩 題茅齋 1수, 附次韻 25수, 追次 2수, 翠寒臺吟贈郭活齋景含, 白雲洞和活齋韻(附原韻)

賦 入德門賦

書 上府伯書

雜著 中庸標題

卷二: 부록

『유일재선생실기』

卷一: 詩 題茅齋 1수, 附次韻 29수, 追次 4수, 翠寒臺吟贈郭活齋景含, 白雲洞和活齋韻贈安靑松鼎 2수, 次權章仲寒接齋韻, 輓金伯榮富仁

賦 入德門

書 上府伯權草澗文海, 與琴而述

識 書安東復號疏後

卷二: 부록

追附 與泗濱書, 答川前金氏書, 答川前

跋 金正欽 撰

『실기증보』

詩 醉別李大仲介立, 贈別大仲

書 與李進士大仲

이렇게 자료가 영성한 것은 집안의 화재로 인해 유고가 소실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겠지만, 세상에 드러나기를 꺼려 임종 당시에 유고를 모두 불태웠던 조부의 영향도 작용하여, 문자 짓는 일을 즐겨 하지 않아서였을 것이다. 물론 화재 이전의 작품만이 현존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柏潭集』과 『松巖集』을 보면, 그들이 유일재와 和韻한 시가 몇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짐작컨대 당시에는 시가 남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남아 있는 9수의 시로 유일재의 문학세계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무리가 있다. 그러나 한 저름의 고기 맛을 보면 술 안 전체의 고기 맛을 알 수 있듯이 남아 있는 시를 분석함으로써 그 문학세계의 대강을 짐작해 보려 한다. 여기에서는 그의 시를 安貧樂道の 추구, 蕭散山水의 興趣, 離別의 情恨 등으로 나누어 살펴기로 한다.

### 1) 安貧樂道の 추구

「入德門」은 장편의 賦로 성현의 가르침에 따라 참된 군자의 덕을 갖추는 데 필요한 실천방법에 대한 경계의 글이다. 먼저 天性的의 고유함에 따라서 인위적인 것을 버리고, 단계의 순서와 규범을 따르고,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을 근본으로 삼아야 함을 말하였다. 그런 다음 格物·致知와 誠心·正心の 先後를 인식하고, 存養省察하며, 惡을 버리기를 악취를 싫어하듯 하고 善을 취하기를 色을 좋아하듯 하고, 마음을 밝혀 만물의 精粗를 비추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한 걸음을 잘못 들어서면 천리길이 어긋남을 경계하고, 덕에 들어가는 문이 항상 설치되어 있으나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어지럽게 치달리는 後學들을 꾸짖고 있다.

다음은 「입덕문」의 마지막 부분인 箴이다.

門之外兮 鬼谷千尋 문의 밖은 천 길의 귀신 골짜기,  
 門之內兮 聖道弘深 문의 안은 성현의 道가 크고 깊네.  
 盍歸乎來 詢訂且樂 어찌 돌아가 가르침을 묻고 즐거워하지 않겠는가?  
 由而入則 堯舜可及 따라서 문으로 들어가면 堯舜이 될 수 있고,  
 反而出則 禽獸同歸 돌이켜 문에서 나가면 禽獸처럼 되리라.



嗟惟是門 進德之基 아, 이 문이여! 德에 나아가는 바탕이요,  
 君子所履 小人所視 君子는 실행할 것이요, 小人은 본받는 것이로다.  
 所入殊間 聖狂分岐 들어가는 문이 달라서 聖인과 狂人으로 나뉘지니,  
 吾爲此懼 守門以敬 나는 이것을 두려워하여, 敬으로 문을 지키려 한다.  
 奉承聖教 顧諟明命 聖人의 교훈 받들어 이 明命을 돌아보며,  
 曷不自力 在吾性兮 어찌 스스로 힘써 本性 보존 않으리오.

장편 부의 대의를 요약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人慾을 막고 외물의 유혹에서 벗어나 存養省察하여 군자의 덕을 갖추어야 함을 말하고 있다. 그리하여 올바르게 입덕문에 들어서면 넓고 큰 성인의 도를 접할 수 있는 것이다. 성인의 도에 힘써서 本性을 보존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다음은 「題茅齋」시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유일재는 1561년, 42세 되던 해에 가야에 서당을 지어 '惟一齋'라 편액하였다. 여기서 30년 강학이 시작되었다. 서당 '유일재'가 완성되고, 「題茅齋」라는 시를 지었다. '유일재'는 '茅亭'·'草堂'<sup>16)</sup>·'書堂'<sup>17)</sup>·'書齋'<sup>18)</sup> 등의 이름으로도 불렸던 것 같다. 『백담집』에는 「用金仲曄茅亭韻」라는 제목의 시가 두 수가 실려 있다. 이 시<sup>19)</sup>는 유일재의 '초정' 운에 차운한 시로 「題茅齋」와는 다른 시이다. '魚'운의 '徐'·'如'·'初'자를 썼다.<sup>20)</sup> 분명 현존 「題茅齋」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일재'를 짓고 '모재' 시가 창작되자 사방의 벗들과 제자들이 和次韻詩를 지었으며, 이는 유일재의 사후에도 끝임 없이 이어졌다. 문집에 수록되어 있는 차운시는 23人<sup>21)</sup>의 33首이다.<sup>22)</sup>

16) 권호문, 『송암집』 권 3, 「차제김중온가야초당(次題金仲曄佳野草堂)」.

17) 구봉령, 『백담집』, 권 4, 「차제김중온언기서당운(次題金仲曄彦璣書堂韻)」.

18) 김성일, 『학봉집』, 권 1, 「차제김중온언기가야서재(次題金仲曄彦璣嘉野書齋)」.

19) 구봉령, 『백담집』, 권 2, 「用金仲曄茅亭韻」

堯舜基源步疾徐 聖賢謨訓日星如 男兒立脚須牢住 免被人嘲賦遂初

攻文切句效應徐 仁義數映自藹如 但使有源真似水 風騷何必突黃初

20) 구봉령은 「訪金仲曄茅亭乘醉書贈」과 「又用訪仲曄茅亭韻」을 남기고 있다.

21) 차운한 인물을 문집의 순서대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具鳳齡·金誠一·權好文·權春蘭·金八元·權大器·鄭惟一·具贊祿·安霽·金富倫·高應陟·金克一·金守一·金富弼·琴應夾·吳守盈·孫冀·李元承·李憑·辛乃沃. 그리고 李惟樟·李光庭·金命錫은 追次韻詩를 지었다..

22) 『유일재집』에 실려 있는 것 외의 차운시로, 『백담집속집』 권 3에 「寄題金仲曄草堂

「題茅齋」는 유일재의 삶의 자세를 노래한 작품으로 세속의 명리에 초연하고 담박하면서 가난한 가운데 도를 즐기려는 처사로서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謀拙難成屋數間	내 계획이 졸렬하여 집 몇 칸 짓기도 어려워,
開基春日涉冬寒	봄에 기초를 닦고 겨울을 지냈네.
重茅風散椽全露	겹겹 띠풀 바람에 흩어져 서까래 드러나고,
博土氷凝壁未乾	벽들 흙은 얼어서 벽이 마르지 않는구나.
月入虛簷明照榻	텅 빈 처마에 든 달은 탐상을 밝게 비추고,
烟生疎戶翠連山	성근 집에서 피어난 연기는 산을 푸르게 이었네.
蕭條雖甚吾猶樂	쓸쓸함이 심하지만 내 오히려 즐거우니,
爲是身心兩得閒 <sup>23)</sup>	이로 인해 몸과 마음 모두 한가롭구나.

이 시에서 유일재는 중년에 접어든 시인에게 세속적 명리는 사라지고 자기에 주어질 현실을 긍정하면서 찾아온 여유를 노래하였다. 여기서 자신을 '拙'하다고 표현한 것은 '巧'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巧'하지 못하고 '拙'했기에 현재의 여유를 누릴 수 있음을 말한 것이다. 교묘한 재주를 가지고 세상에 진출했다면 몇 칸 집을 짓는 데 해를 넘기고 띠지붕이 바람에 날아가는 어려움은 겪지 않았을 지 모른다. 그러나 세속의 명리에 얽매었다면 처마에 비친 달빛, 푸르게 잇닿은 산이 주는 자연의 즐거움을 느낄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상에서 安貧樂道를 추구하는 그의 의식세계를 시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입덕문」부는 성현의 도를 실천하려는 의지의 표출이었다면, 「제모재」시는 安分自足하는 그의 의지가 실천되었음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用金舜舉韻 斗室神遊宇宙間 臥看光景遶炎寒 梅招雪魄窓生暈 筍脫龍繡土未乾 霜日射紅收野靄 春風吹綠滿雲山 從前慣覺幽居樂 到此空添夢裏閒과 「金仲暉草堂用金舜舉韻」 3수가 실려 있으며, 『송암집 속집』 권 2에 「次題金仲暉佳野草堂」 1수가 실려 있다. 그리고 권호문은 같은 운을 사용하여 「巖堂書懷次韻」·「雪後」·「送金學諭舜舉之京」·「送安東教授權灝元」·「送晉州教授鄭子精」·「送權府使紹瓜歸」·「送圓上人還清涼山」 등의 전별시를 지었다.

23) 『유일재집』, 권 1, 「題茅齋」.

## 2) 蕭散山水 興趣

‘蕭散’이란 한가롭고 자유롭다는 의미로 舉止, 精神, 風格 등이 自然스러워 구속되지 않음을 형용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소산산수’의 흥취란 산수를 벗하며 소요하는 가운데 생성된 한가로운 흥취이다. 따라서 ‘소산산수’의 흥취는 인위와 조작이 배제된 자연스러운 산수놀이에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다.<sup>24)</sup>

위의 시는 翠寒臺를 찾아가는 도중의 흥취를 노래한 것이다.

日出烟開試拓扉	해뜨고 안개 걷히자 사립문을 열어 젖히고
身輕步穩去忘歸	몸도 가볍고 걸음도 느긋하여 돌아오기를 잊었다.
牧童傍岸騎牛過	언덕의 목동들은 소를 타고 지나가고
山鳥依林見客飛	숲 속의 새들은 객을 보고 날아오르네.
松影滿臺涼逼骨	솔그림자 가득한 臺에 서늘함 뼈 속까지 스며들고
水聲春石爽侵衣	바위돌에 떨어지는 물소리에 상쾌함은 옷깃을 적시네.
光風霽月無邊趣	쾌활하고 쇠락한 정취는 끝이 없고
醉裏乾坤眼底微 <sup>25)</sup>	취중에는 온 세상이 눈 아래 희미하구나.

首聯에서는 사립문을 열고 나가 산수에 젖어든 시인의 가벼운 발걸음은 돌아오는 것을 잊게 한다. 頷聯에서는 언덕의 목동들이 소를 타고 지나가고 새들이 나그네를 보고 놀라 날지만 어디에도 인위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고 한가롭고 자연스럽게만 느껴진다. 頸聯에서는 자연의 상쾌함이 극에 달하고, 尾聯에서는 아침에 집을 나온 시인은 돌아가길 잊어버리고 한 밤중이 되어 자연의 정취에 흠뻑 빠져 버린다. 그리고 벗과 나눈 술잔에 온 세상이 이미 희미하게 되어 버렸다. 이 시는 시인이 사물을 보는 視點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아침에 직접 사립문을 열어 젖히고 집을 나서니, 옆으로 목동들이 소를 타고 지나고 새들이 날아오른다. 취한대에 오르니 멀리서 물떨어지는 소리 들리고, 한 밤중이 되니 먼

24) 이종호, 「월천 조목의 문학세계」, 『한국의 철학』 24, 경북대 퇴계연구소, 1996, 참조

25) 『유일재집』, 권 1, 「翠寒臺吟贈郭浩齋景舍」

하늘에 달이 떠 있고 술에 취해 세상이 보이지 않는다. 가까이서 점점 확대되면서 '소산'한 흥취를 더욱 자아내고 있다.

다음은 白雲洞에서 浩齋의 시에 和韻한 시이다.

良宵好會綠尊兼 아름다운 밤 좋은 모임에 맞난 술이 있으니  
 諧笑云云也不嫌 웃으며 이야기하는 것이 도무지 싫지 않네.  
 梧影滿庭涼露下 오동그림자 가득한 뜰에는 찬이슬 내리고  
 夜深山月入虛簷<sup>26)</sup> 밤 깊어지자 산달이 빈 처마에 들어오네.

이 시도 친구와의 정겨운 만남과 가을 밤중의 아름다운 경치를 읊은 것이다. 1,2구에서는 '好會'와 '諧笑'를 3,4구에서는 '梧影'과 '山月'을 등장시켜 봉우간의 즐거움과 산수의 즐거움을 동시에 표현했다.

다음에 소개되는 시는 송암 권호문의 寒棲樓에 차운한 시이다.

爲訪故人上玉峯 친구를 찾기 위해 玉峯에 올랐다가,  
 憑欄一笑豁塵心 난간에 기대어 한바탕 웃으니 세속 마음 넓어지네.  
 主人濯足滄浪去 주인은 발씻으러 滄浪으로 가버렸으니,  
 烟濶雲深底處尋<sup>27)</sup> 자욱한 안개 짙은 구름 그 아래를 찾아보네.

권호문은 진사에 합격하였으나, 연이어 부모를 여의자 3년씩 廬幕을 지키며 官界에의 진출을 단념하고, 靑城山 기슭에 無悶齋를 짓고 살았던 인물이다. 만년에 덕망이 더욱 높아져 찾아오는 문인들이 많았으며, 集慶殿參奉·內侍教官 등에 임명되었으나 모두 사퇴하였다. 유일재와 송암은 한 평생 처사로서의 삶을 산 인물들이다. 그런 친구를 찾아 누대에 오르니 세속의 마음이 저절로 사라져 버린 것이다. 그리고 세속의 발을 씻으러 간 은자를 찾아가는 은자의 모습에서 물욕에 얽매이지 않은 '眞隱'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 세속의 권력과 부귀, 그리고 번잡함에서 벗어나 자연친화를 통해 탈속적인 분위기를 감수함으로써 초연한 시인의 모습을 형상화하였다.

26) 『유일재집』, 권 1, 「白雲洞和浩齋韻」

27) 『유일재집』 권 1, 「次權章仲寒棲樓齋韻」

### 3) 離別의 情恨

현재 남아 있는 시들이 몇 편 되지 않지만 대부분이 친구와 이별의 애상을 노래한 것이고, 한 편은 亡者를 애도하는 輓詩이다.

遠別湖南千里去	멀리 湖南으로 천리 길을 이별하는데,
秋風落葉正紛紛	가을 바람에 낙엽들 정히 어지럽구나.
居民絕鑿攀鞆泣	머무는 사람은 등자 끊어지자 재갈잡고 우는데,
行旆留鞭拂袖奔	떠나는 사람은 채찍잡고 소매를 떨치며 달려가네.
山谷奉錢情脈脈	산골짜에서 노자돈 올리니 정회는 끝이 없고,
鬱林輸石快欣欣	울창한 숲에서 봉록을 회사하니 기쁨이 가득하네.
愚蒙亦失瞻依地	내 어리석어 또 의지할 곳을 잃어버리고,
悵望征塵立斷魂 <sup>28)</sup>	슬피 나그네 자취 바라보며 괴로이 서 있네.

이 시는 호남으로 천리길을 떠나는 친구를 전송하는 시이다. 언제 지었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주석에 의하면 당시에 유일재는 청송교수로 있었다고 하는데, 고향을 떠난 객지에서 다시 천리길로 친구를 보내는 안타까운 심정을 보여 주고 있다. 친구를 쫓아가려 해도 등자가 끊어져 말을 타고 따라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친구는 더욱 채찍질하여 달려가니 그저 멀리서 괴롭게 바라보고만 있는 시인의 안타까움이 절실하다.

다음의 두 시는 『유일재실기 증보』에 실린 것으로, 성오당 이개립의 종가에서 수습한 시이다.

傾蓋雖云久	노상에서 우연히 만난 것이 오래 되었으니,
團欒恨未因	團欒했던 때 다시 만날 수 없음이 한스럽다네.
樹雲江渭思 <sup>29)</sup>	멀리 떨어져 간절히 그리워하니,

28) 『유일재집』 권1. 「贈安青松鼎」 二首

29) 수운강위사(樹雲江渭思): 나무는 강수(江水)에 있고 구름은 위수(渭水)에 있다는 뜻으로, 한사람은 강수에 있고 다른 한 사람은 위수에서 서로 생각한다는 말이다. 전하여 먼 곳에 있는 벗을 생각하는 정이 간절함을 비유하여 이른다. 「杜甫·春日憶李白詩」에 「渭北春天樹 江東日暮雲」이라고 하였다.

尊酒癸酉春 술을 올리던 때가 계유년 봄이었던가?  
 得失何須說 득실을 따져서 무엇하리오?  
 襟期盡故人 옷깃을 마주하고 친구의 정을 다하고자 하네.  
 日高分手後 해가 높이 떠 서로 헤어진 후에는,  
 何處會留陳<sup>30)</sup> 어디에서 다시 만나 정을 나누겠는가?

空堂閑寂何人到 텅 빈 집이 적막한데 누가 찾아왔는가?  
 擺袖春風喜子來 봄바람에 옷깃 날리며 반가운 사람이 왔구려.  
 阻絕多年同費夢 수 년 동안 서로 끊겨 꿈속에서 헤맸더니,  
 相逢今日共啣盃 오늘 서로 만나 술잔을 기울이는구나.  
 一聲長笛三更月 한밤중 달빛 아래 한 줄기 피리소리 들리는데,  
 數曲清歌兩別懷 몇 곡의 맑은 가락은 이별의 정을 노래하네.  
 莫負柴桑秋訪約 누추한 곳을 가을에 찾겠다던 약속 저버리지 마시오,  
 黃花翠竹滿園栽<sup>31)</sup> 황국과 취죽을 뜰에 가득 심어 놓겠네.

주석에 의하면 “내가 형과 이별한지 오륙 년이 되었다. 뜻하지 않게 형이 나를 가구로 찾아왔고, 또 성안에서 만나게 되었다. 公堂에서 밤을 이어서 함께 자게 되었으니 다행함이 이보다 큰 곳이 없었다. 밤늦도록 실컷 술을 마셨으나 마음에 오히려 미흡함이 있어서 다시 가을에 만나기로 약속을 하였다. 그래서 마지막 구절에 그 약속을 지키기를 힘쓰라고 한 것이다.(吾與兄離崇已五六載矣 不意吾兄訪余於佳丘 又會於城中 公堂連夜共枕 幸莫大焉 厭厭夜飲 情猶未洽 更期秋會 故未句勉其踐約云)”라고 하였다. 꿈속에서 찾아 헤매던 친구가 5년 만에 다시 찾아오니, 만남의 기쁨보다는 이별의 슬픔이 앞선다. 그리고 다시 만날 기약을 잊지 말하고 간곡히 부탁을 하고 술빛을 황국과 변하지 않는 대나무를 심어 놓으리라는 안타까운 심정을 노래하였다.

살아 있는 사람과의 이별은 안타깝지만 언젠가는 만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亡者와의 이별은 그런 기대감마저 없기에 더욱 슬프게 하는 것이다. 더욱이 평생의 知己인 경우에는 그 아픔이 더 한 것이다.

다음 시는 유일재와 佳野同志契의 일원이었으며 퇴계의 문인인 金富仁의 죽음

30) 『유일재실기증보』, 「醉別李大仲介」

31) 『유일재실기증보』, 「贈別大仲」

을 애도한 시이다.

天地鍾精英 천지의 정기를 모아,  
 雄才間世生 빼어난 재주로 세상에 태어났네.  
 胸中藏萬甲 가슴 속엔 백만대군 숨기고,  
 身○任長城 몸은 長城을 지켰네.  
 方畧常山鎮 책략은 常山鎮<sup>32)</sup>의 顏杲卿 같고,  
 威稜細柳營 위엄은 細柳營을 능가하였네.  
 寬仁容率伍 관대하고 인자함으로 병졸들을 통솔하고,  
 神武霽雷霆 귀신같은 무공은 우레가 치는 듯.  
 孝友因天性 효도하고 우애함은 天性이니,  
 慈詳豈假情 자상함이 어찌 거짓이리오?  
 鄉閭宜表率 향당에서는 모범으로 여기고,  
 王國恃藩屏 나라에서는 간성으로 믿었네.  
 .....  
 松阡看慘愴 무덤을 보니 참담하여,  
 雨淚涕雙零<sup>33)</sup> 두 줄기 눈물이 비오듯 흐르네.

金富仁은 일찍부터 효행이 뛰어났으며 文章으로도 이름이 났었다. 그러나 문과에 실패하고 무과에 급제하여 북방으로 여진족 정벌에 큰 무공을 세웠으며, 학문에 뜻을 굽히지 않은 그는 벼슬을 그만두고 퇴계의 문하에서 經學을 연구하였다. 유일재는 이 輓詩에서 官界나갔을 때와 돌아왔을 때의 망자의 모습을 대비시켜 성공적으로 인물을 형상화하였다. 무장으로 나가서는 책략과 위엄을 갖추면서도 인자함과 관대함으로 군대를 통솔하여 큰 무공을 세운 모습을 묘사하였다. 벼슬을 그만두고 돌아와서는 효도와 우애를 다하여 고을의 모범이 된 망자의 모습을 묘사하였다.

만시에서 세상을 떠난 인물의 학덕과 인격, 그리고 동류의 죽음이 그에게 끼친 애상의 정감 등을 꼭진하게 그려내었다.

32) 常山鎮: 唐나라 顏杲卿의 주둔지. 안고경은 하북성 常山郡의 太守있다가, 안녹산이 반란을 일으키자, 그는 從弟인 안진경과 의병을 일으켜 반란군의 배후를 위협했다. 이듬해 史思明에게 포위되어 고전 끝에 체포된 후, 안녹산 앞에 끌려나온 그는 끝까지 굴하지 않고 안녹산의 반역을 힐난하다가 처형되었다.

33) 『유일재집』, 권 1, 「輓金伯榮富仁」

## 4. 結論

이상으로 유일재 김언기의 삶과 문학에 대해 고찰하였다. 유일재는 순수처사로 일생을 살았다. 비록 관계 진출에 뜻을 두지 않았으나, 향촌사회에서 '士'의 본분을 망각하지 않았으며, 후진양성과 향촌교화에 심혈을 기울였다. 200여 명이라는 문인의 숫자에서도 알 수 있듯이 훌륭한 교육자였다. 그리고 서원 창설 운동을 통하여 선현봉사와 향촌의 교화에 적극적이었다. 이러한 모습에서 16세기 안동의 순수처사로 살다간 선비의 전형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집안의 화재로 인하여 대부분 소실되고 현재 남아 있는 유일재의 작품으로는 詩 8題 9수, 賦 1편, 書 3편, 識 1편에 불과하다. 이렇게 영성한 자료로 문학 세계 전반을 고찰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남아 있는 시를 통해 유일재 문학세계의 대강이나마 짐작할 수 있었다. 그의 시세계는 安貧樂道의 追求, 蕭散山水의 興趣, 離別의 情恨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유일재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題茅齋」는 유일재의 삶의 자세를 노래한 작품으로 세속의 명리에 초연하고 담박하면서 安貧樂道하는 순수처사로서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었다. 이 시에 대한 次和韻한 시가 30여 편 이상되고, 후대에는 追次韻한 시가 지어졌다는 것은 안빈낙도에 대한 그의 추구가 단지 구호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실천적이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시에 나타난 '蕭散山水'에의 흥취는 외물에 얽매이지 않은 그의 여유롭고 자유로운 삶의 추구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輓詩에서는 亡者의 出處에서 취한 모습을 간략하고도 짙진하게 묘사함으로써 인물의 전형을 형상화하는데 성공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는 자료의 제한성 때문에 유일재의 삶과 문학을 심도있게 살피지 못한 한계가 있다. 그의 향촌사회에서의 위상과 문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위해서는 각각 문중에 흩어져 있을 지도 모를 자료를 발굴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하겠다.